

유치열에서의 치아에 대한 trauma는 영구치의 defect를 야기시킨다. 이는 해부학적 관계에서 영구치배와 유치의 치근단간의 밀접한 관계로써 설명할 수 있다(Fig. 1). 특히 발생초기에 injury가 일어날 때 ameloblastic development 단계의 interference에 의해 법랑질 형성이 심하게 장애를 받을 수 있다. 유치의 injury로 인한 영구치에 대한 defect의 율은 12~69%에 달한다.

#### — Injury에 의한 Deviation —

- 1) White or yellow-brown discoloration of enamel

치관의 순면에 대부분 나타나며 유치열 injury 시 23% 정도 나타난다고 보고, 치아의 완전한 맹출후에 임상적으로 전단되어 진다.

- 2) Crown dilaceration

치아의 crown이나 root에서의 급격한 deviation



Fig. 1.



Fig. 3.



Fig. 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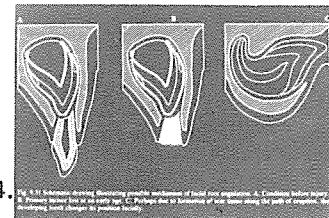


Fig. 4.

을 dilaceration이라 하는데 dental papilla와 cervical loop에 대해 enamel epithelium과 mineralized tooth portion이 displace되어 형성된다. 대개 상하악 incisor 부위에 발생하며 유전치 trauma로 3% 정도 발생한다. ½정도에서 매복되며 치관의 ½정도가 형성될 때의 injury에 많이 발생한다. (Fig. 2-3)

- 3 ) Odontoma-like malformation

Odontogenesis 초기의 injury에 많이 나타남.

- 4 ) Root duplication

유치의 intrusion시 보이는 드문 경우

- 5 ) Vestibular root angulation

유치의 초기소실후의 scar tissue로 인해 치배의 ectopic eruption(Fig. 4)

- 6 ) Sequestration of permanent tooth germ

유치열에 대한 injury 후에는 아주 드물다.

염증에 의해 이환된 치배의 sequestration이 야기 될 수 있다.

# 崔鍾煥 치과기공소

恒常 研究, 勞力 精進하는 姿勢로…

서울 · 종로구 숭인동 1081

전      화 : 93-6671 · 93-2998